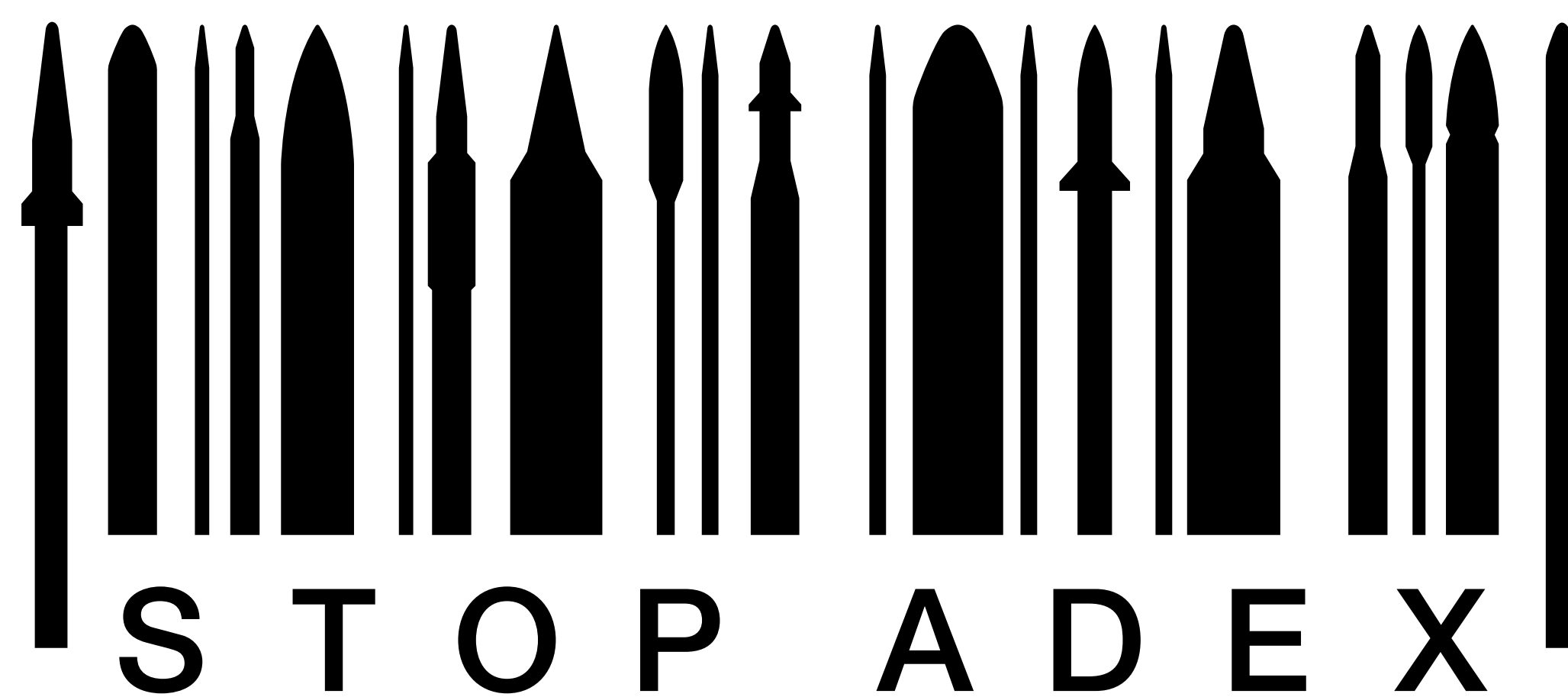


제4회
평화군축박람회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2013 ADEX(무기전시회) 대응 캠페인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있을까요?



"다음은 제 차례인가요?"

"전에는 드론^{Drone} 무인기^{무인기}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드론이 제 머리 위를 날 때,
다음은 제 차례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빌라(8세). 미국의 드론 공격의 희생자 마마나 비비의 손녀.
2012년 10월 어느 오후, 68세의 마마나 비비는 밭일을 하다가
그녀를 직접 겨냥한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다.

얼굴 없는 살인자, 무인기(Drone)



▲ 파키스탄 북서부를 공격하는 무인기



▶ 무인기 공격을 받은 파키스탄 북서부지역은 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아이를 잃고 절규하는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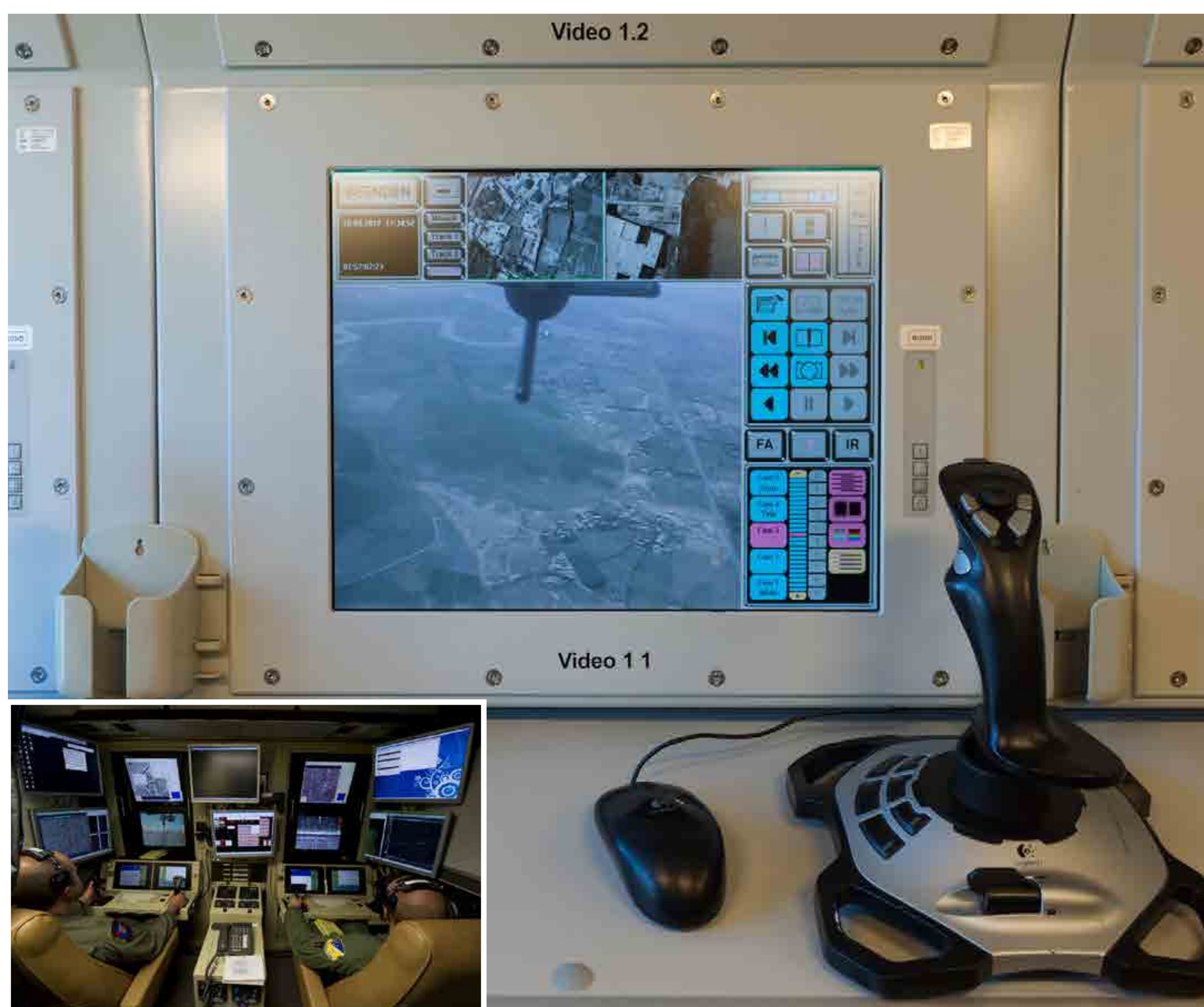
무인기란?

UAV(Unmanned Aerial Vehicles) 혹은 ‘윙윙 거리며 나는 수벌 같다’고 드론(Drone)이라고 불림. 조종사 탑승 없이 원거리 기지에서 원격 조종으로 작동하며 카메라를 장착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직접적인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목적으로 사용됨.

아군의 희생 없이 표적을 타격하는 미국 대테러전의 침병. 2009년 오바마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파키스탄 국경 지역으로까지 대폭 확대시키면서 “미국의 대테러전쟁은 무인기가 치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인기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

국경도, 예고도 없이 드론을 통해 진행되는 그림자 같은 전쟁은 국제법 위반, 주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반(反)드론, 반미 시위가 격화되고 있음.

인간성을 상실한 게임 같은 전쟁



- ▲ 무인기에 달린 카메라 전송화면. 마치 게임화면을 보는 듯 하다.
- ▶ 전장에서 수천km 떨어져 있는 기지에서 마치 오락게임을 하듯 무인기 조종이 이뤄지기 때문에 운영요원은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인명을 살상한다.

테러리스트와 민간인 구분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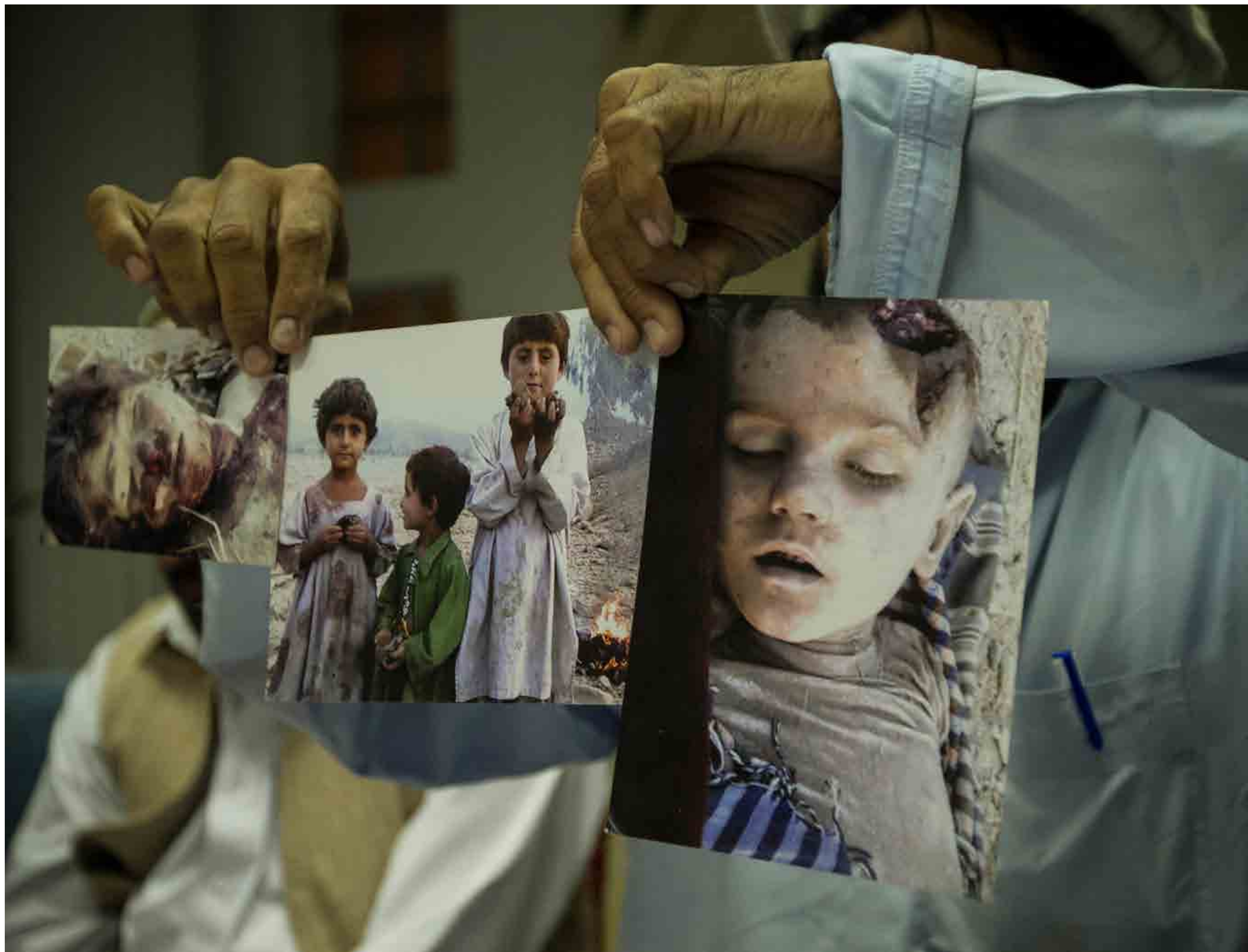
원격 화면만 보고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사전정보로 민간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다수의 민간인이 공격 당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긴장 높이는 더러운 드론

동북아 국가들 간에 무인 정찰기 '드론' 경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수천대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도 무인 공격기 개발 착수(2013년)는 물론 2014년 무인기 분야에 예산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일본 역시 센카쿠 열도 등 영토분쟁 가능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무인기 도입 등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표적 1명당 민간인 49명 살해



◀ 무인기 공격으로 사망한 어린이들의 사진.
▲ 무인기 공격을 반대하는 미국 시민들.

드론 공격의 피해

미국의 파키스탄 북서부지역에 집중된 무인기 공습으로
지난 2004년 이후 파키스탄에서만 3천4백여 명이 드론에 살해되었습니다.

그 중 4분의 1이 민간인, 특히 176명은 어린이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공격 표적 1명이 살해될 때, 민간인이 49명꼴로 같이 희생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드론 공격으로 희생된 사람들

미국 무인기의 파키스탄 공격으로 사망한 민간인 중 신원이 확인된 317명 *(괄호 숫자는 나이)

Sons of Sher Zaman Ashrafkhel (10, 16)	Ziaur Rahman (17)	Azaz-ur-Rehman	Niamatullah	Abdul Waris (16)	Mashal	Ismael	Abdul Ghafoor	Mir Qalam
Wife, daughter and two female child relatives of Abu Hamza Rabia	Abdullah (18)	Mansoor-ur-Rehman	Shahzad	Darvesh (13)	Syed Noor	Gul Akbar	Jan Mohammad Mehsud	Saad Wali Khan
Noor Aziz (8)	Ikramullah (17)	Kushdil Khan	Ilyas	Ameer Said (15)	Jehanzeb	Mohammad Sheen	Dilawar	Muhammad Fayyaz
Abdul Wasit (17)	Inayat ur Rahman (16) and Shahbuddin (15) brothers	Ubaid Ullah	Bashir	Shaukat (14)	Liaqat	Lewanai	Bakhan	Ayeesha (3)
Hayatullah KhaMohammad Tahir (16)	Rafiq Ullah	Wajid	Wajid	Inayat ur Rahman (17)	Daraz	Mir Zaman	Noorullah Jan	Noor Janan
Maulvi Khaleefa	Sardar	Safat Ullah	Laiq	Sabil	Din Mohammad			Farhad
Azizul Wahab (15)	Najid	Shams	Naeem Ullah (10)	Salman (16)	Mulvi	Malik Tareen	Ilyas	Samad
Fazal Wahab (16)	8 grandchildren, two wives and elder sister of Jalaluddin Haqqani	Noor	Sabir	Fazal Wahab (18)	Ikramuddin	Noor Ali	Jamil	Salam
Ziauddin (16)	Baseer	Riaz	Riaz	Rahman (13)	Wife of	Zare Jan	Farman	Sadar
Mohammad Yunus (16)	Naila (10)	Shaukatullah	Shaukatullah	Wali-ur-Rahman (17)	Mulvi Ikramuddin	Sadiq	Imran	Bakhtar
Fazal Hakim (19)	Kamran	Yahya Khan (16)	Yahya Khan (16)	Iftikhar (17)	Wife of	Mustaqeem	Latif	Atif (12)
Ilyas (13)	Siddiq	Rahatullah (17)	Rahatullah (17)	Inayatullah (15)	Baitullah Mehsud	Khangai	Wife & Son of Badr Mansoor	Samad
Sohail (07)	Noorul	Khan (21)	Khan (21)	Majid	Syed	Gulnaware	Sakeenullah (15)	Jamshed
Asadullah (09)	Haq	Mohammad Salim (11)	Mohammad Salim (11)	Siraj	Wali Shah (7)	Faenda Khan	Shafiq	Daraz
Shoaib (08)	Zarmali	Shahjehan (15)	Shahjehan (15)	Malik	Mautullah Jan	Dindar Khan	Bashirullah	Iqbal
Khalilullah (09)	Khan	Gul Sher Khan (15)	Gul Sher Khan (15)	Gulistan Khan & 3 sons	Sabir-ud-Din	Umark Khan	Amir Khan	Noor Nawaz
Noor Mohammad (08)	Muhammad	Bakht Muneer (14)	Bakht Muneer (14)	Noor Syed (8)	Kadanullah Jan	Wali Khan	Shairullah	Yousaf
Khalid (12)	Sultan Jan	Numair (14)	Numair (14)	Masal	Razm Khan	Adnan (16)	Abidullah	Shahzada
Saifullah (09)	Bukhtoor	Mashooq Khan (16)	Mashooq Khan (16)	Mehboob	Haris	Najibullah (13)	Fazle Rabbi	Akram Shah
Razi Mohammad (16)	Gul	Ihsanullah (16)	Ihsanullah (16)	Waris	Taj	Naeemullah (17)	Syed Noor	Atiq ur Rehman
Mashooq Jan (15)	Aman	Luqman (12)	Luqman (12)	Wasim	Sanaullah Jan (17)	Hizbullah (10)	Shakirullah	Irshad Khan
Nawab (17)	Ullah Jan	Jannatullah (13)	Jannatullah (13)	Ihsan	Raza Khan	Kitab Gul (12)	Banaras	Amar Khan
Sultanat Khan (16)	Imran Khan	Ismail (12)	Ismail (12)	Javed	Jamil	Wilayat Khan (11)	Fayyaz	Shabbir
Ziaur Rahman (13)	Elda Jan	Taseel Khan (18)	Taseel Khan (18)	Tahir	Mustafaa	Zabihullah (16)	Zaenullah Khan (17)	Kalam
Noor Mohammad (15)	Shakum	Zaheeruddin (16)	Zaheeruddin (16)	Maulvi	Noor Gul	Shehzad Gul (11)	Asif Iqbal	Waqas
Mohammad Yaas Khan (16)	Nasrullah	Qari Ishaq (19)	Qari Ishaq (19)	Nazir’s wife, daughter-in-law, & sons Abdullah	Jaffar	Shabir (15)	Khaliq Dad	Bashir
Qari Alamzeb (14)	Umar	Jamshed Khan (14)	Jamshed Khan (14)	& Abdul Latif, nephew Mohammad Shoaib	Faraz	Qari Sharifullah (17)	Sadiq Noor	Abdul Jalil
Ghulam Nabi (21)	Naeem	Alam Nabi (11), brothers	Alam Nabi (11), brothers	Tariq Dawar Khan	Musa	Shafiullah (16)	Wajid Noor (9)	Maulana Iftiqar
	Dil Nawaz	Sahib Rehman	Sahib Rehman	Sabir	Kamal *	Nimatullah (14)	Khalid	Saeedur Rahman
	Yousaf Ashraf	Rahmatullah (14)	Rahmatullah (14)	Ikram	Malik Daud Khan	Shakirullah (16)	Matiullah	Khastar Gul
	Naimatullah	Abdus Samad (17)	Abdus Samad (17)	Mohib	Ismail Khan	Talha (08)	Kashif	Mamrud Khan
	Taj Mohammad	Siraj (16)	Siraj (16)	Zahid	Hajji Babat	Jamroz Khan	Zaman	Noorzal Khan
	Musa	Saeedullah (17)	Saeedullah (17)		Khnay Khan	Nephew & son of Awaz Khan	Waqar	Tariq Aziz
	Mohammad Khaleel				Gul Mohammed and his son	Zahidullah	Akbar Zaman	Waheed Khan



“악몽같은 순간이었어요”

리비아의 14살 소년 아이만 압둘 라티프(Ayman Abdul Latif)는
집밖에서 놀던 중 불발된 확산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만진 순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이 발생했지요.
라티프는 두 손을 잃었고 몸통과 사지는 파편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죽음의 비 확산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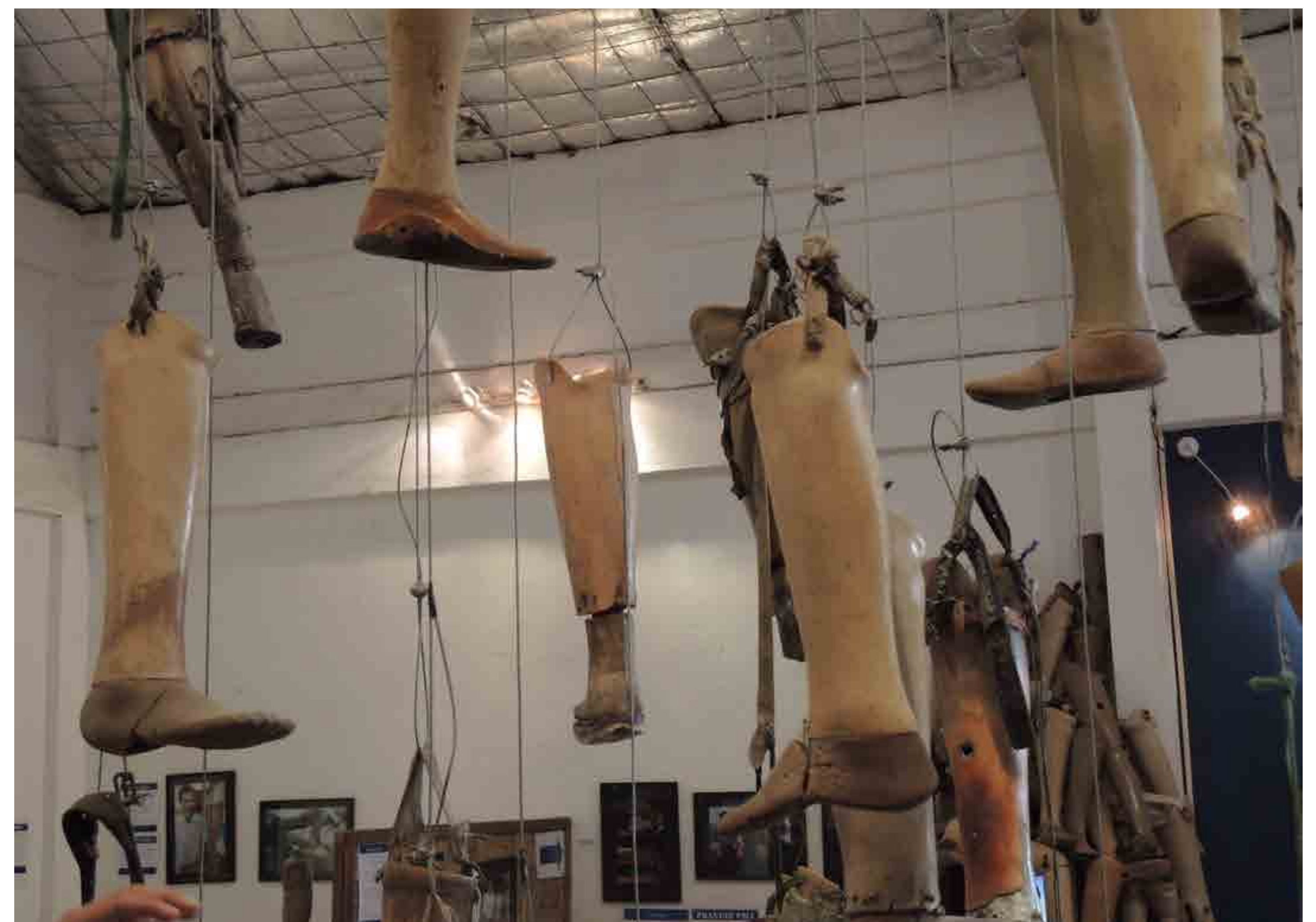
▼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투하된 엄청난 수의 확산탄



확산탄(Cluster Bomb)이란?

- 확산탄 또는 집속탄, 모자(母子)탄, CBU(Cluster Bomb Unit)
- 한 개의 확산탄 안에 수십, 수백 개의 소폭탄이 가득 채워져 있어 공중에서 터지면서 안에 들어있는 작은 폭탄들이 흩어지며 연쇄적으로 폭발
- 넓은 지역에서 다수의 무차별 살상과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인살상용 산탄형 폭탄
- 확산탄으로 인한 사상자의 98%가 민간인
- 보통 축구장 3~4배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며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
- 폭발하지 않은 불발탄은 이후에도 오래도록 남아있다가 지뢰처럼 작용

불발탄 문제 외면하는 **한국**



라오스는 전세계 가장 많은 확산탄이 투하된 지역이다. 이곳에는 아직도 다량의 불발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불발탄으로 다리는 잃은 사람들을 상징화한 의족 전시. (라오스 COPE Center, 확산탄의 문제를 알리는 전시관)

불발탄의 문제는 기술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국은 전세계의 확산탄 금지 및 폐기 노력에 역행하여 오히려 확산탄을 **생산·수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 한국정부는 기술적 발전으로 불발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전상황에서 불발률은 10%가 넘기도 하며, 1%의 불발탄 또한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 실제 2006년 레바논 남부에는 약 400만발의 확산탄이 뿌려졌는데 1%의 불발률이라 하더라도 이미 4만발의 불발탄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무차별적으로 인명을 살상하는 확산탄 자체의 비인도성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 확산탄으로 발생하는 사상자의 98%는 민간인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미 폐기하기로 결정된 무기를 한국이 생산하여 수출까지 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용산 전쟁기념관에는 한국산 확산탄이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전쟁과 같은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
확산탄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보유한다면서,
한국산 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시민들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확산탄 생산 기업, **한화**와 **풍산**



한화 MLRS(다련장 로켓시스템)용 로켓탄과 헬기, 항공기에서 투하되는 확산탄을 생산,
70mm 다련장 개발, 차기 다련장 개발 진행중. 2008년 파키스탄에 확산탄 수출한 것으로 추정

풍산 주로 대포에 쓰이는 확산탄을 생산, 2004년 파키스탄과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

- 이 두 기업은 세계 8대 확산탄 생산기업입니다.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한화와 풍산 두 회사를 확산탄을 생산하는 비윤리적 기업이란 이유로 투자대상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한국의 금융기관, 기업들 또한 확산탄 생산기업인 이 두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의 목숨을 노리는 무기를 판매해 누군가는 돈을 버는 비윤리적이고, 잔인한 일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자랑스러운 무기, 다련장 로켓? MLRS



민간인 대량살상으로 악명높은 확산탄 사용무기

- 다련장 로켓시스템은 지대지 로켓 및 유도탄 사격체계로서, 한국 육군이 가진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화력무기입니다. 다련장 로켓탄 1발은 축구장 3개 면적(6000평)을 일시에 초토화시킵니다. 다련장 로켓시스템 1개 포대(3문)가 일제 사격을 할 경우 1분 안에 2만3000개가 넘는 소폭탄을 목표지역에 쏟아 붓습니다.
- 다련장 로켓은 시리아 내전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양산(93%가 민간인)해 시리아에서 사용된 '더러운 무기' 12가지(재래식무기)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 한국은, 다련장 로켓시스템을 점점 공격적 전략의 일환으로 증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K-136 구룡, M270, M270A1 MLRS, 에이태킴스 등을 이미 갖추고 있는데도

새로운 차기 다련장 로켓시스템을 국산 개발·양산하고 배치하려고 합니다.

- 한국은 2009년부터 차기 다련장 로켓시스템 사업개발을 시작하여 2014년 전력화를 목표로 70대 양산에 총 사업비 1조 9269억원을 들이고 있습니다. 탄약 소모량이 워낙 많은 다련장 로켓은 전력 유지비용만도 엄청납니다. 현재 M270A1 다련장이 대당 57억원, 로켓 탄두 1개가 3000만원이 넘는 점을 비추어볼 때 차기 다련장 70대에 들어갈 로켓 수량을 생산하려면 끊임없이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비인도성을 이유로
이미 폐기하기로 한 확산탄에
천문학적 예산을 써야 하나요?**



“그들은 우리에게 총 쏘는 법, 사람들 심장과 발을 겨누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얀색의 가루가 섞인 밥과 빨간색 가루가 섞인 소스를 먹어야 했습니다.

주사도 맞았습니다. 저는 세 번이나 맞았어요.

주사를 맞고 가루가 섞인 밥을 먹으면 저는 모터가 달린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선생님을 위해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적들은 개처럼 보였고,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들을 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 말리 세구아에서 포로로 잡힌 한 소년병의 이야기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한국지부 홈페이지 인용)

민간인 살상 제조기 ‘소형무기’

소형무기에 의해

매년 50만명 사망



80% 아동과 여성

1일

1,300명 사망

3,000명 심각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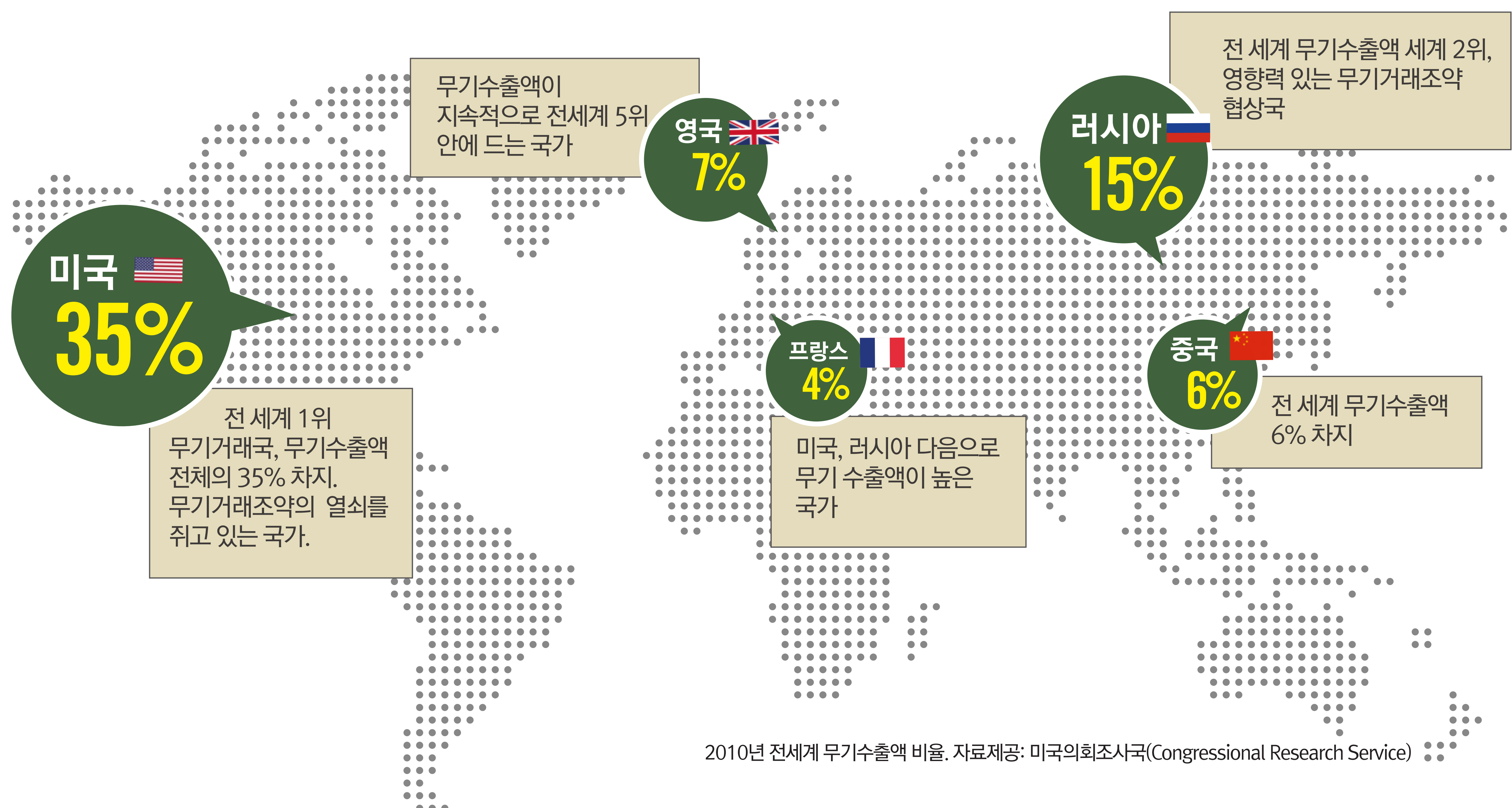
현대 분쟁의 민간 사상자의 90%가
소형무기에 의해 발생함

소형무기란?

- 소형무기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권총, 기관단총, 소총, 기관총 유탄발사기, 산탄총, 로켓추진유탄발사기 및 휴대용 미사일 등의 소형무기와 경무기를 지칭합니다. 지구상에는 현재 8억7천만 개의 소형무기가 있으며 매년 약 800만개가 소형무기시장으로 진입되고 있습니다.
- 현대 분쟁의 민간 사상자 90%가 소형무기에 의해 발생하며, 그 중 80%는 여성과 아동입니다.

- 소형무기는 다른 무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부피가 작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불법 거래량(1조7백억 규모, 전 세계 무기 거래량의 10-20% 내외로 추산)이 많으며, 전 세계의 분쟁지역으로 밀반입되어 연간 50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Global issue, small arms survey).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무기거래국?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무기거래량 전 세계 약 70% 차지

- **미국** 전 세계 1위 무기거래국으로, 170개국이 넘는 곳에 무기 공급. 이집트의 중요 무기 공급처이며, 시위대를 통제하기 위한 화학제품 등을 공급
- **러시아** 무기수출액 세계 2위로, 시리아의 최대 무기 공급 국가
- **영국** 재래식 무기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세계 5위 안에 들며, 일반적으로 무기거래 기준 준수하고 있으나, 스리랑카를 포함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무기 공급
- **중국** 무책임한 무기거래로 수단 다르푸르 지역으로, 리비아 알-카다피 군에게 로켓과 대전차 지뢰가 공급되었음
- **프랑스** 기본적으로 엄격한 무기거래 기준을 지키고 있으나, 여전히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 이집트, 차드, 시리아 등으로 무기 공급

무기는 어떻게 국경을 넘어 분쟁지역으로 흘러가는가?



우크라이나에서 시에라리온까지

국경을 넘어 분쟁지역으로 흘러 들어간 무기는 무력분쟁에 동원된 수만명의 소년병의 손에 쥐어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무기는 어떻게 국경을 넘어 분쟁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까요?

- 무력분쟁과 무장폭력으로 인해 1분마다 1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 2,600만 명의 사람들이 무력분쟁으로 인해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 불법 무기거래로 어린 아이들의 손에 무기가 쥐어지고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수천, 수백만 명의 사망자, 부상자가 발생하는 분쟁지역으로 끊임없이 공급되는 무기의 출처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아이들은 총을 들게 되었을까?



사진 속 어린이들이 쥐고 있는 것은 장난감 총이 아닙니다. 실제 무기입니다.
군대체험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살상무기를 직접 조작하고 겨냥해보는 모습입니다.



살상무기를 체험하고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교육이 어린이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사회의 평화에 도움이 될까요?

- 어린이들은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에 이끌려 병영캠프에 참가합니다. 캠프에서 집단적으로 살상용 무기(서바이벌 게임 등)를 체험하고, 적의 개념을 강조하는 안보 교육을 받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무기가 가진 폭력성과 대인살상이라는 본질을 외면하게 하고, 무방비의 어린이들에게 살상무기를 직접 체험하도록 유도합니다. 최근 5년간 병영캠프를 다녀온 초·중·고생은 11만 1397명에 달합니다.
- 18세 이전까지의 모든 교육에서 폭력과 적개심을 조장하는 내용은 국제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됩니다. 더구나 폭력성을 이유로 총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내용의 서든어택, 스페셜포스와 같은 온라인 게임에도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안보교육은 정부 정책과도 모순됩니다

살상무기 보러 가시나요?



최첨단 사양의 살상무기 보러 가시나요?

더 잘 죽이는 무기에 환호한 나머지 아무 거리낌 없이
무기전시회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나요?

총과 탱크, 각종 최신무기를 만지작거리는 어린이에게 이 무기가 어떤
살상무기인지, 무기가 사용되는 분쟁 속에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떤
고통을 주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무기에 환호하는 사회

정부는 경제적 이득만 가져온다면 무기수출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무기산업을 장려하고 무기수출 대국이 되는 것을
국정과제로 내세웁니다. 무기생산 기업들은 사람 죽이는 무기라는
본질을 가리고 있으며 무기산업을 '첨단기술'이라는 화려한 수사로
포장합니다.

방위산업전시회 = 살상무기전시회

방위산업전시회 = 살상무기전시회



무기전시장의 최첨단 무기들은 실제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터전을 파괴한다

무기산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국의 무기산업 육성 정책 수출무기 = 살인무기

‘방위’란 ‘적의 공격이나 침략을 막아서 지킨다’는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방위산업전시회’에 전시되는 무기들은 방어적 목적의 다소 선량한 수단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방위산업전시회에 전시되는 무기들은 모두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살상무기들입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 수출품목이란 이름으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무기는 결코 살인도구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역대 한국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전략 산업, 수출주력사업으로 육성해왔습니다. 또한 무기산업의 ‘비즈니스 장’을 제 공한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꾸준히 대규모 무기전시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방위 산업전시회’라고 불리는 이 전시회에는 전 세계의 대표적 무기제조 업체들과 국방 관계자들이 참가해 엄청난 규모의 무기를 전시하고 거래합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는 결국 지구 어딘가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 도구가 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무기사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10만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낸 시리아 내전이 계속되는 이유는 바로 정부군과 반군에 끊임없이 무기를 제공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분쟁지역에 무기를 적극 수출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 무책임한 일입니다.

국산 무기개발은 언제나 바람직한가?



정부는 한국이 생산하는 무기가 국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무관심하다. 수주결과를 치켜세우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홍보하는 데 그칠 뿐 무기수출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무기산업 육성은 윤리적으로 옳은가?

한국이 무기 수출 대상국가로 삼고 있는 나라들에는 터키, 인도네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분쟁국가이거나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분쟁과 고통에 기생할 수밖에 없는 방위산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겠다는 한국 정부의 무기산업 육성정책은 과연 윤리적으로, 국제 평화원칙에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국가로서 국제 평화를 추구하는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이 무기 수출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평화, 무기로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과거 한국은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오늘날 국제사회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기보다 무기공급을 통한 경제적 이득만 취하려 하는 것은 과거 쓰라린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한반도는 언제 다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정전체제에 놓여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위기에 닥쳤을 때 다른 국가들이 이를 무기수출의 기회로만 여긴다면 긴장관계는 더욱 고조되고 분쟁 발발 가능성을 높여 결국 한반도의 평화는 보장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공격적 무기도입은 과연 한반도 평화를 가져 오나요?



한국 정부는 능동적 억제전략에 기초해 차기 전투기 사업으로 스텔스 기능의 5세대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의 레이더 망에 포착되지 않게 적진에 침투할 수 있도록 하는 스텔스 기능은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평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의 월등한 전력

한국 육군은 북한에 비해 월등히 우세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적으로는 북한이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노후해 질적으로 한국군 무기가 훨씬 우세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능동적 억제전략에 따른 막대한 공격형 무기도입

국방부는 2013년 ‘능동적 억제전략’을 발표하고 킬체인 구축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일련의 압도적 공격 능력을 다양하게 갖추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대형 공격 헬기 도입, 이지스함 구축, 차기 전투기 사업 등 대규모 첨단무기 도입 사업들이 그것입니다.

공격형 무기 도입과 선제 타격 개념, 안보가 아니라 대립만 부추길 위험

공격형 무기의 대량 획득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으며, 특히 ‘선제 타격’ 전력은 휴전선을 넘어 북에 들어가 타격한다는 것으로 국지전 하에서도 전면전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방어를 위한 적정 수준의 군사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되는 공격적 계획과 첨단무기들의 전략적 구축은 한반도 평화 노력이 아니라 군사적 대립을 유도할 뿐이며 동아시아의 지역적 갈등 역시 부추기게 할 것입니다.

평화와 군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비인도적 무기, 확산탄 생산 중단하라



확산탄금지협약이란?

확산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CCM)은 확산탄의 사용, 생산, 이전, 비축을 전면 금지하고, 확산탄 보유 국가의 비축분 전면폐기, 오염지역 정화, 확산탄 피해자 지원 등의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협약입니다.

그동안 확산탄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확산탄은 사용할 때는 물론 사용 후에도 대량으로 남겨진 불발탄으로 오랫동안 민간인을 공격하기 때문에 1997년 국제적으로 금지된 대인지뢰 이래 가장 심각하게 민간인을 위협하는 무기로 손꼽혀왔습니다.

확산탄금지협약은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막기위한 국제 확산탄금지운동이 이끌어낸 성과입니다.

확산탄 금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2007년 2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46개 국가와 NGO들이 모여 2008년까지 확산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협약을 만들자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후 2007년 12월 오스트리아, 2008년 2월 뉴질랜드에서 주요 회담이 열렸으며, 결국 2008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107개국의 만장일치로 확산탄금지협약이 탄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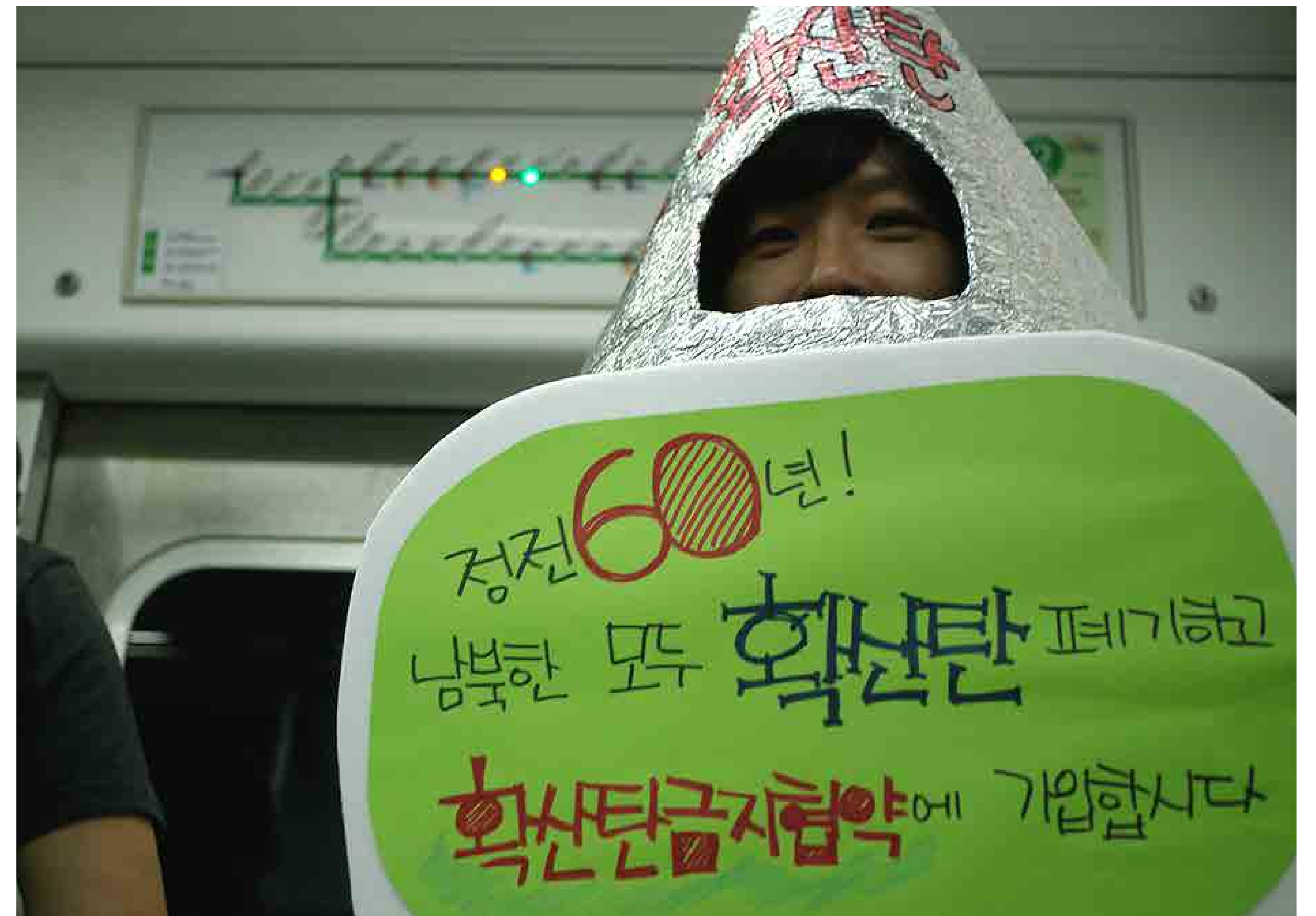
아직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 생산국이 참여하지 않아 한계가 있지만, 2013년 현재 전 세계 112개국이 협약에 가입해 확산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군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국 정부, 확산탄금지협약 가입하세요!



한국의 확산탄금지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평화활동가들.



**한국은 확산탄 생산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확산탄 문제에 쏟아진 국제적 관심에 비해 한국 정부는 여전히 무책임,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랑스러운 한국군 무기로 확산탄을 소개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이 생산하는 모든 종류의 확산탄을 수입해 신형 확산탄을 계속 확보하고 있으며, 구형 확산탄의 폐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3년, 강력한 무기거래조약 탄생!



무기거래조약은 재래식 무기 국제거래 규제의 엄격한 국제공통기준 설립 또는 규제를 향상시키고, 재래식 무기의 불법거래와 전용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적/국제적 평화, 안보, 안전에 기여하며 인권침해를 줄이고, 재래식 무기의 국제이전에 있어 당사국들의 협력, 투명성,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서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무기거래조약에 통제 대상에는 전차, 장갑차, 전함, 공격헬기, 전투기, 박격포, 미사일/미사일 발사 장치, 소형·경무기 등이 포함됩니다.

단언컨대,
무기거래조약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조약입니다

무기거래조약은

모든 인권침해 상황을 중단시키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수십 억 명의 생명과 인권이 보호하는데 국제적인 밑바탕이 될 것이며,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무기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규범과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 비준국은 한국이 되어야!

무기거래조약의 비준과 발효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무기거래조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 50개 국가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50번째 국가가 비준한 90일 이후 조약이 발효됩니다 (현재 서명국 113개 비준국 7개).

평화와 군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국 정부, 무기거래조약 비준하세요!



◀ 한국 시민사회의 바레인으로의 최루탄 수출 금지 촉구 기자회견
▲ 한국산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15세 바레인 소년, 사예드 하심 사이드 Sayed Hashim Saeed.
이 사진은 바레인으로의 최루탄 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사이트 “Stop the Shipment” 첫 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참조 www.stophtheshipment.org

2012년 지금까지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이집트에 한국 무기 공급

2013년 5월, 터키 시위대의 과도한 무력진압 현장에서 한국산 최루탄 발견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국가에 무기류를 공급하는
한국 정부에게, 우리는 요구한다!**

- 이집트, 터키 혹은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국가의 무기 공급을 엄격히 검토하고 필요시, 무기 이전을 중단하라
- 무기거래조약 비준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국내법규를 재검토하고, 정비하라
- 무기거래조약 서명국으로서, 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제6조(금지)와 제7조(수출 및 수출평가)를 잠정적으로 적용하라

평화와 군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2014년 국방예산안 35.8조원...
매일 1000억원씩 국방비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비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민들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보다
조기 퇴직과 해고, 실직에서 오는 불안감,
높은 등록금과 보육료에서 오는 불안감 등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을 더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초대형 무기
증강사업에 쓸 것인가, 복지비에 쓸 것인가 하는
결정에 시민의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국방정책에
대한 기밀주의와 전문가주의를 제거하고
국방관련 부문과 국방 외 부문, 그리고 시민사회
간의 일상적 소통체계를 확보하여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군사비 지출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

무기수입 세계 4위, 국방비 지출 세계 12위, 교육비 21위, 사회복지비 33위

순위	무기수입 (순위)	국방비 (억 달러)		교육비 (%)		사회복지비 (%)	
1위	인도	미국	6688	덴마크	7.5	프랑스	32.1
2위	중국	중국	1576	아이슬란드	7.3	덴마크	30.2
3위	파키스탄	러시아	906	스웨덴	6.6	스웨덴	29.8
4위	한국	프랑스	626	벨기에	6.4	벨기에	29.7
5위	싱가포르	영국	598	핀란드	6.3	핀란드	29.4
6위	알제리	일본	592	뉴질랜드	6.1	오스트리아	29.1
7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542	노르웨이	6.1	독일	27.8
8위	미국	독일	486	아일랜드	6.0	이탈리아	27.8
9위	아랍에미리트	인도	483	에스토니아	5.9	스페인	26
10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368	프랑스	5.8	포르투갈	25.6
11위		이탈리아	357	이스라엘	5.8	영국	24.1
12위		한국	315	오스트리아	5.7	그리스	23.9
13위		호주	256	포르투갈	5.5	헝가리	23.9
14위		캐나다	224	스위스	5.5	아일랜드	23.6
15위		터키	179	네덜란드	5.3	룩셈부르크	23.6
16위				슬로베니아	5.3	노르웨이	23.3
17위				영국	5.3	네덜란드	23.2
18위				미국	5.3	슬로베니아	22.6
19위				멕시코	5.0	일본	22.4
20위				폴란드	5.0	폴란드	21.5
21위				한국	4.9	뉴질랜드	21.2
22위				스페인	4.9	체코	20.7
23위				캐나다	4.8	에스토니아	20
24위				헝가리	4.8	캐나다	19.2
25위				호주	4.5	미국	19.2
26위				독일	4.5	슬로바키아	18.7
27위				이탈리아	4.5	아이슬란드	18.5
28위				칠레	4.3	스위스	18.4
29위				체코	4.2	호주	17.8
30위				슬로바키아	4.1	이스라엘	16
31위				일본	3.6	터키	12.8
32위						칠레	11.3
33위						한국	9.4
34위						멕시코	8.2

2008-2012 주요 무기 수입국
출처: SIPRI Yearbook 2013

2012년 국방비 지출순위(2011년
US\$ 불변가격기준)
출처: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2009년 GDP 대비 공공 교육비 비율
출처: OECD Factbook 2013

2009년 GDP대비 정부지출 사회복지
비 비율
출처: OECD 2012 Government
Social Spending: Total Public so-
cial expenditure as a percentage
of GDP

평화와 군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초대형 무기 증강사업? 군수업체 배불리기!



2013년 4월 대형 공격헬기 도입 사업
기종으로 선정된 아파치 헬기.
아파치 가디언 36대 도입에
1조 8천 4백억 원이 소요된다

수 조원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국가예산에 대한 고려와 적절한 평가 없이 초대형 무기 증강사업이 중복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구입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현실성 결여 문제로 사업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외국 무기상들에게는 한국은 '큰 손'

수많은 무기도입 사업으로 막대한 국민 세금이 해외 군수업체들 수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2~4위의 무기수입 국가이며, 미국산 무기 수입은 세계 1위(SIPRI)로 감안하면 지나치게 과도한 무기 도입(수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밖에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화와 군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한국과 미국은 지속적으로 대규모 연합 해상 훈련을 하고 있다
최근 그 규모가 더욱 커졌다



2013년 2월 3차 북핵 실험 이후 남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시민들이
나서 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군사비 늘리고 무기 증강하면 더 안전해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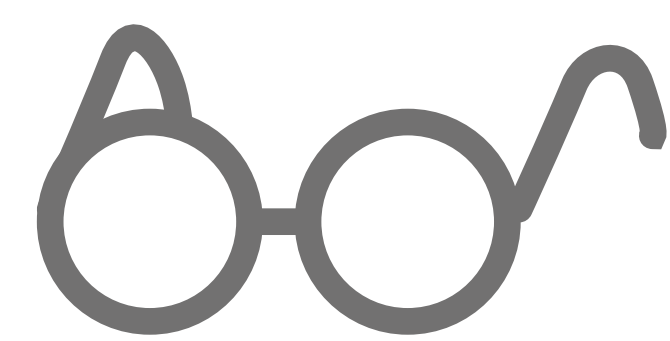
지난 20년 동안 남한은 북한 군사비의 10배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군비경쟁에 뒤흔들린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더 집착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 역시 한반도 상황을 빌미로 경쟁적으로 최첨단 기술의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력 과시용
연합훈련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미국, 일본, 중국을 상대로 군비경쟁을 해서 승산이 있을까요?

전쟁을 준비하면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군비경쟁과 전쟁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시민의 안전이 더 위협받습니다.

평화와 군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평화, 시민이 만들어 갑시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 백범 김구 선생님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나라 중에서